

# 소련형 대학의 노동자학부

잉그리트 미테 독일 기센대학교

이 글은 프롤레타리아화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대학들의 소련화에 기여하고 있는 예시로서 ‘노동자학부’에 대해 설명한다. 소련 연방에 1919년 최초로 설립된 노동자학부 교육기관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회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적 발전 과정’을 거친 국가들에서 설립되었다. 동독, 쿠바, 베트남, 모잠비크에서의 노동자학부에 대한 네 가지 사례연구는 ‘소련형 대학의 요소’가 네 나라에 모두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학부가 각 나라에 적용될 때, 각 국가들의 지역적 조건과 정치적 상황에 기반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되어 적용되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학부의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과정은 소비에트 연방이 다른 국가들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들과는 전혀 다른 독립적인 과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련 연방의 강한 영향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소련화(Sovietization)’의 개념은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주제어 노동자학부, 소련화(공산화), 세계화, 교육

## I. 들어가며

이 글은 소련형 대학에만 존재했던 ‘노동자학부’의 내용을 다룬다. 소련형 대학은 특히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유럽 대학들과 비교 및 분석 작업을 거쳤다.

첫째, 자치적으로 운영되던 대학에 제한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대학이 중앙집권 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대학에 당 조직과 청소년 단체가 설립되면서 기존에 대학을 주도하던 공산주의 및 당파적 조직의 역할을 유지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셋째, 인문학과 일반 교양에 집중하던 대학의 기능을 정치적-교육적, 공리주의적-실용적 교육 등으로 확대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인문학과 사회과학 과목

번역: 윤순식/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을 줄이면서 자연과학과 공과대학의 학업 과정을 늘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넷째, 의무 학과목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 관련 수업을 도입, 이러한 세계관을 담은 교과내용이 관철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등교육 전반에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화를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째, 대학의 전통과 관심을 사회주의 계획경제 조건하에 두고 있는데, 즉 신입생 수, 학과 확충, 대학 설립 등이 경제적 요구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살펴봐왔다.

여섯째, 대학생과 교수진이 대학의 ‘프롤레타리아화’를 기치로 협력하여 목표 지향적인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그렇다고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화가 기회 균등 달성이라는 사회정치적 목표를 최우선으로 추구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사회정치적 목표란 대학 내 정당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권력정치적 기대감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다른 비교 항목들이 있으나 명확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특히 과학아카데미)나 전문화된 대학의 건립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런 항목들이 결코 소련형 대학만의 특징은 아니다. 공산화가 시작되기 전에 유럽의 많은 국가(예를 들어, 프랑스나 독일)에도 과학아카데미는 존재했다. 그래서 과학아카데미의 존재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공산화 과정의 일부로 생성되는 새로운 정치적 방향성이 더 중요했다. 또한 공산화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모든 전공에 대한 일괄적인 교과과정의 도입도 소련형 대학만의 특징은 아니다. 늦어도 1990년대부터 유럽의 대학에서 활발하게 시작된 볼로냐 개혁<sup>1</sup>은 이른바 ‘모듈화’ 형식으로 모든 전공 분야에 중고등학교 식의 교육과정을 초래했다.

<sup>1</sup>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모여 2010년까지 단일한 고등교육제도를 설립, 유럽 대학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9년에 출범한 프로그램이다.(볼로냐 선언) 그 후 유럽연합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도 참여해 회원 수가 47개국으로 늘었다. 목표는 유럽 내 통용되는 학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및 연구원의 국제교류를 증진하고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르면 가맹국 내에서는 대학 졸업장 하나로 모든 나라를 넘나들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유럽 어느 대학을 나오든 유럽 국가에서는 어디서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다. 교육도 경쟁이 된 현 시점에서 유럽 대학들이 제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인재 확보를 꾀함을 엿볼 수 있다. (위키백과 [www. https://wikipedia.org](https://wikipedia.org)) (편집자 주)

이 교육과정은 공산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었으므로, 공산화 과정에서 일반화시킬 수 없었다.

이 글에서는 프롤레타리아화 과정에서 보여준 소련형 대학 내 사회적 구성의 변화를 조명한다. 프롤레타리아화는 단순히 기회의 균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언급되는 요구이며, 때때로 교육정책 목적의 프로그램 촉진을 위한 요구도 의미한다. 나아가 대학 수업을 듣는 노동자와 농민이 공산주의 정당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권력의 확대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화와 관련된 인적 범위를 확대시키는 목표는 개인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요구와 연결된다.

소련형 대학의 프롤레타리아화 촉진의 핵심은 새로운 학과, 이른바 노동자학부의 신설이었다. 소련 연방국에서 처음 시작된 노동자학부는 이후 10년간 다른 사회주의 국가 및 주변 국가들로 저변이 확대됐다. 그리고 소련의 영향력, 특히 나라마다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학부가 어떻게 각 국가에 안착했는지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한 세기에 걸친 전 세계적인 발전 과정에 주목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됐던 공산화에 대한 기준들은 점점 더 그 설득력을 잃는다.

본 연구 조사는 독일 학술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2개의 프로젝트, 즉 독일민주공화국의 노동자-농민학부의 역사에 관한 프로젝트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쿠바, 베트남, 모잠비크의 노동자학부 프로젝트의 자료를 참고했다. 모든 사례연구는 국가별로 다양한 기록과 인터뷰를 토대로 했다.

## II. 출발점: 소련의 노동자학부

러시아어로 노동자학부(Рабочий факультет)는 ‘랍팍(Rabfak)’으로 줄여 표현되었는데,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소련에서 존재했다. 노동자학부, 즉 랍팍의 기능은 노동자와 농민이 대학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했다. 왜냐하면 러시아 혁명 후 도입된 대학 개혁(1918)으로 모든 시민이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도 대학 입학이 허가되었기 때문이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대학에 입학한 많은 학생이 대학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서 그에 상응한 준비 과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더 나은 대학공부 준비 과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랍팍이 대학의 정책을 제시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것이다.

랍팍은 가장 먼저 모스크바에 있는 ‘G.V. 플레하노브’ 경제연구소에 설립되었고, 1920년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 1919년 9월부터 시작된 ‘대학에 랍팍 연구소를’이라는 법령이 1920년 9월 인민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비준됐다. 이후 기존 인민위원회에 있던 모든 교육 관련 규정이 재검토됐고 1920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랍팍이 신설되기 시작했다. 이 법령에는 고등교육기관(대학)이 랍팍을 설립한다는 내용과 대학이 없는 지역에는 그 사정에 맞게 기업에 랍팍과 유사한 교육 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랍팍은 교육인민위원회(나르콤포로스)의 대학제도 관련 부서의 관할하에 있었으며, 1920년부터는 교육인민위원회에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설치되었다. 1922년부터는 랍팍의 최고 책임자도 랍팍과 관련된 대학 회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921년 4월 1일 당시 소련에는 총 59개의 랍팍이 설립됐고 2만 5,43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었다. 4년 뒤인 1925년까지 각각 65개, 3만 1,644명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파견 정책에 의해 랍팍에 참여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정당, 지방 자치 단체 등 금전적으로 후원해주는 기관이 학생들을 선별해 파견하는 방식이다. 학업은 낮에도 가능했고 일과 병행하는 야간 수업도 가능했다. 전공은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 교양을 쌓는 데 교육 과정이 맞춰져 있었다. 1926년까지는 별다른 입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랍팍 졸업생들은 모든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이는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불만을 야기했고 1926년에 폐지됐다. 그때부터 랍팍 졸업생들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다.

1930년까지 랍팍은 대학이나 일반 기업과 연계할 수 있었다. 1930년 이후부터는 랍팍이 기본적으로 대학의 한 부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동시에 대학의 여러 학과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단과대학으로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리된 단과대학들은 일반 기업과 연계되어 학생들에게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가

르쳤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과 연계된 랍팍도 상당수 존재했다.

동시에 랍팍 시스템의 확장기를 맞이했다. 1934년까지 랍팍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1932~1933년에 1,025개의 랍팍과 33만 9,517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등 최대 호황기를 누렸다. 하지만 그 이후 점차 쇠퇴기에 들어섰다. 2차대전 발발과 함께 1941년부터 모든 교육기관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랍팍을 대체하는 야간학교, 산업학교, 노동자대학 등 성인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러한 기관들은 랍팍에 비해 대학공부를 준비하는 데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도 단축된다는 장점을 내세웠기 때문에, 랍팍은 기존의 입지를 점차 잃어갔다.

랍팍의 발전 시기는 소련의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 발전 시기(1919~1929)에 랍팍은 교육인민위원회 소속으로 일반 교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랍팍은 대학 내 하나의 부서이면서 동시에 일반 기업과 연계되어 있었다. 두 번째 발전 시기(1930~1941)에는 랍팍이 대학의 부속기관으로 확정되었다. 그 이후 랍팍은 교육부 관할하에 여전히 교육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 나머지 랍팍들도 — 전 대학들처럼 — 각기 다른 전문 부서로 배치되었다.

이처럼 랍팍의 구조에 변화가 생긴 것은 1930년 시행된 교육 개혁과 연관이 있다. 소련의 1차 5개년 계획(1928~1932) 당시 진행된 산업화에 따라 엔지니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는 두 가지 큰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 후 교육을 받는 야간학교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다. 둘째, 다수의 랍팍 졸업생들이 공과대학으로 진학했다. 그 결과 일반 교양을 가르치던 랍팍이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런데 이런 전문화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랍팍 졸업생은 대학의 모든 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 시기 랍팍의 목표는 오직 학생들이 관련 대학에 진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30년부터 랍팍 졸업생들은 더는 공과대학이나 대학 산하 교육시설로 진학할 자격이 없었다.

### III. 비교 기준

랍팍이 다른 나라의 노동자학부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글의 처음에 제기했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상이한 두 가지 연구를 추가했다. 첫째, 역사적으로 어떠한 교류 과정을 거쳤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예를 들어, 교육 상담자나 대표단의 파견은 있었는지, 아니면 노동자학부의 구상은 차용했는지 등을 참고했다.

둘째, 랍팍과 다른 나라에 설치된 노동자학부 간의 구조적인 측면을 비교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성인들을 교육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기관들을 각각 분류하고 이를 통해 랍팍의 특징을 끄집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 기준들을 세웠다.

먼저, 노동자학부의 입학 대상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특정 사회적 그룹으로 한정된다. 소련의 랍팍은 ‘노동자’를 지칭하는 단어지만 큰 범주에서 농민도 포함했다. 과거에 혁명이나 시민 투쟁에 연루됐던 사람들도 입학은 할 수 있었으나 주 대상 그룹은 아니었다. 이런 그룹을 모집하는 목적은 소련 시스템에 잘 녹아드는 ‘새로운 엘리트’의 양성이었다.

둘째, 노동자학부는 변화의 물결에 따라 즉각 설립되었으며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 건립의 잠정적 해결책으로 간주되었다. 노동자학부는 정부가 직접 관할했고, 이미 존재하던 성인 교육기관들과는 다르게 새로 도입됐다.

셋째, 노동자학부는 각 대학에 소속돼 독립적인 학부 역할을 했다. 이러한 독립성은 그것을 부르는 명칭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그 연관으로 노동자학부는 학생들과 교수들을 통해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는 대학에서도 새로운 공산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을 가능하게 했다.

노동자학부의 확대 교류는 두 가지 각기 다른 흐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흐름으로, 2차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소련의 영향을 받던 국가(동독,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들을 중심으로 노동자학부들이 속속 생겨났다.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했던 아시아 국가(중국, 베트남, 북한)들까지 노동자학부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이 노동자학부의 확대에 기여한 것

이다.

두 번째 흐름으로, 아메리카(쿠바, 니카라과), 아프리카(모잠비크)에서도 노동자학부의 확대 교류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랍팍의 전통적인 기능과 유사한 구조가 보이지만 소련의 실질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 대신 간접적인 확대 교류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 특히 동독이 쿠바와 모잠비크의 노동자학부 설립에 도움을 주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쿠바는 니카라과에 노동자학부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랍팍 모델이 끼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동독, 쿠바, 베트남, 모잠비크의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IV. 랍팍 모델의 영향력: 네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 1. 동독

러시아와 다르게 독일은 산업화를 이룬 국가다. 수백 년 전부터 전 세계의 관심을 받던 대학체계가 존재했는데, 이것은 전통을 의식하면서도 차별화된 대학 시스템이었다. 또한 19세기 말부터는 노동자 교육도 존재했다. 이 노동자 교육은 1920년대에 노동자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제도로 발전했다. 이런 배경의 영향으로 2차대전이 끝나고 나서도 독일은 소련의 랍팍을 따라 할 이유가 없었다. 실제 1945년 이후 독일의 차별화된 시스템은 노동자와 농민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이른바 예비 대학기관으로 발전했다. 이 예비 대학기관은 무엇보다 독일의 노동자 교육의 전통과 연계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소련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예비 대학기관도 병존해 있었다.

1949년 10월 기존의 예비 대학기관이라는 명칭은 일괄적으로 노동자-농민학부(Arbetarnas bildningsförbund, ABF)로 바뀌었다. 병존하던 독일 내 예비 대학기관들은 소련 랍팍의 장점을 차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모든 교육 시설은 대학 내 독립기구로 편성되었고, 학생들은 대학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며 교사들은 모든 대학위원회를 대표했다. 모든 노동자 및 농민 학부는 1952년까지 동

독에 공식적인 연방정부 구조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립된 ‘대학제도 국가사무국’에 처음부터 중앙집권적 형태로 속해 있었다. 교육 대상자는 노동자와 농민(및 자녀까지)으로 한정됐다. 노동자 및 농민학부 수강자 전원이 이러한 직업을 가진 것은 아니고 80% 정도의 수강자들이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대학제도 국가사무국’에서 노동자 및 농민학부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주 논의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일반 교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진행할지 아니면 전문성을 기르는 교육을 제공할지 여부였다. 1930년대 소련에도 제기됐던 전문교육의 도입 여부와는 다르게 동독에서는 일반 교양을 기르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그렇다고 특수 노동자 및 농민학부의 확대에 대한 기존의 구체적인 계획이 바뀌지는 않았다. 이는 소련의 랍팍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당시 소련에서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전문화에 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반면 독일에서는 훔볼트(K.W. Humboldt)가 강조한 일반 교양 함양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고 이도 소련과 교육 방향의 차이를 낳는 요인이 되었다.

독일 노동자 및 농민 학부는 소련의 모델을 따라가다 점차 다시 독자적인 시스템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소련의 랍팍 2차 개혁 시기에서는 동독과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그 대신 독자적인 독일 교육전통과 관련하여 동독만의 일반 교양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행정적인 관할권에서도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 2. 베트남

베트남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매우 상이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노동자학부와도 차이가 있었다. 우선 노동자 교육기관이 대학과 연계되지 않았다. 그 대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한 교육부 소속의 자체적인 교육기관이 1956년 건립돼 1964년까지 존재했다.

이렇게 다른 기관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노동자학부와 그 기능은 일치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 대상자들을 압축된 교육 과정 속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교육 대상자들은 노동자



와 농민이 지명되었다. 하지만 농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베트남의 사회구조 탓에 노동자들이 교육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베트남처럼 농업 위주의 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농민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됐다. 다만 기초교육 수준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농민과 그 자녀들을 모집하는 것이 최대의 난제였다.

농민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고 문맹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노동자-농민 학교가 속속 설립되었다. 여기서 성공적으로 교육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은 다른 유능한 당간부들처럼 베트남에 있는 종합대학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베트남의 노동자-농민학교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엄선된 인재들의 몇몇 소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대학 진학을 돕는데 집중했다. 이후 이들은 베트남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서 활동하며, 독자적인 국가 엘리트의 양성에 기여했다.

베트남의 노동자 교육기관은 소련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공통점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랍팍이 학부로 이뤄진 데 비해 베트남에서는 ‘학교’가 있다는 구조만 봐도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영향이 컸다. 중국에서는 1950년부터 1958년까지 노동자-농민-진흥 중학교(工农速成中学·공농속성중학)가 있었다. 중국의 교육기관도 대학 소속이었지만 소련의 ‘학부’와 다르게 ‘학교’로 통칭됐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베트남의 노동자학부도 사회주의 국가 내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기능은 소련과 동일하지만 소련의 랍팍과 구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 소련과 다르게 베트남에서는 노동자학부가 수도에만 존재했다. 지방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실패했다. 지방의 교육 수준이 현저히 낮은 탓이 컸다. 소련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 계층만을 위한 ‘나셈-랍팍(Nacem-Rabfak)’이 존재했지만 베트남에서는 이러한 후원이 없었던 것도 그 차이점이다.

### 3. 쿠바

1959년 혁명 이후 설립된 쿠바 혁명 정부는 교육에 관심이 컸다. 이러한 관심을 토대로 노동자학부가 설립됐다. 쿠바에서는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노동자학

부가 발달했는데, 하나는 산타 클라라, 산티아고, 하바나 각각 세 지역에 있는 대학에 독립적인 노동자학부가 신설되었다. 다른 하나는 레닌-특수학교 설립과 함께 제2형태의 노동자학부가 설립되었다.

레닌-특수학교는 대학 소속이 아닌 정부의 산업부 소속이었다. 우선 교육 대상도 산업노동자들이었고, 학교는 수도인 하바나에만 있었다. 하지만 점차 다른 지역 노동자학부의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수업은 하루 종일 진행되어서 학생들은 작업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제공되었고 장학금 제도도 있어 학생들은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수도 하바나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과 출발점이 달랐던 만큼 성과도 훨씬 좋았다.

이에 비해 대학에 속해 있는 노동자학부는 다소 다른 구조였다. 우선 대학 정치의 기능을 담당했고 쿠바 혁명 정부의 입지를 탄탄히 하는 데 기여했다. 또 대학뿐만 아니라 외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대학 소속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학부를 다닐 수 있었다. 수업은 기본적으로 저녁에 진행되었으며 그 덕분에 학생들은 낮에 일을 할 수 있었다. 소련 랍팍도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수업을 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학업과 노동이라는 이중의 부담 탓에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다. 쿠바에서는 이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다른 방식을 고민했다.

또한 교육 대상자들의 관점에서도 쿠바에서는 ‘노동자나 농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매우 폭넓게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련은 학생을 선발할 때 사회적 출신 성분을 많이 고려했지만, 쿠바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통칭했다. 결과적으로 쿠바에서는 사회적 출신 성분으로 인한 노동자학부 내 논란은 없었다.

#### 4. 모잠비크

모잠비크에는 이른바 ‘전직 군인과 노동자를 위한 학부(FACOTRAV)’라고 하는 단 하나의 노동자학부만 있었다. 소련의 교육 자문가들은 대학 내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지만, ‘선구적 교육기관’인 ‘전직 군인과 노동자를 위한 학부’가 설립될 당시에는 아무 역할도 없었다. 오히려 동독에서 온 교육 자문가들이 더 활발히 활동했다. 자연스럽게 소련의 랍팍보다는 동독의 노동자-농민학부(ABF)를 본보

기로 삼게 됐다. 물론 동독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노동자학부의 교수진과 대학의 행정 관리직은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과 서구 출신 교육 자문가들로 골고루 섞여 있었다. 그 외에도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모잠비크 해방전선(FRELIMO)’은 이미 해방전쟁 당시에 독자적인 교육을 구상하여 자국 교육제도의 초석을 다졌다고 보는 것이 옳다. 결과적으로 서구의 마르크스 정신과 동구권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쳤는데, 그 영향은 넓은 의미에 있어 마르크스 정신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결코 동구권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단순한 변형은 아니었다.

‘전직 군인과 노동자를 위한 학부’가 이렇게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전통적인 노동자학부를 표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 조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를 가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련의 랍팍과 동독의 노동자-농민학부와 가장 눈에 띄는 유사점은 대학 내 독립기관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과 과정의 기본적인 구조도 동독의 노동자-농민학부와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본 입장으로 하는 엄격한 교과 과정은 변경될 수 없었다. 또한 ‘전직 군인과 노동자를 위한 학부(FACOTRAV)’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 하나는 전통적인 랍팍과 마찬가지로 최우선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대학 진학을 돕는 데 집중하고,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각자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했다. 이렇게 성장한 인적 자원은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일터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적 조건에 따라 교육 대상의 목표도 다른 노동자학부와는 차이가 있었다. 농업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우선 교육 대상이 농민이었다. 하지만 모잠비크의 경우 오랜 식민지 상황에 따라 농민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이 기초적인 교육(초등학교 6학년 수준)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직 군인과 노동자를 위한 학부’는 혁명과 식민 시대 이후 무엇보다 먼저 일정 수준에 이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데 힘썼다.

## V. 결론

노동자학부의 다양한 형태를 비교해본 결과 우리는 각 국가의 노동자학부가 본래의 노동자학부 형태에서 다소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소련 대학의 중앙집권적 구조였다. 이에 기반해 각 국가의 지역적 특색과 교육 환경에 따라 조금씩 그 형태가 변했다. 심지어 소련의 노동자학부 모델인 랍팍을 가장 많이 모방했던 동독의 경우도 발전 과정에서 그 형태를 달리했다. 그 대신 홈볼트가 강조한 일반 교양의 함양에 힘썼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랍팍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대상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잠비크의 경우 해방운동에 힘썼던 군인들까지 교육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베트남과 모잠비크에서는 노동자가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농민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켰다. 동시에 소련과 유럽 국가들의 주요 쟁점이던 교육을 통한 사회적 불평등 감소는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주요 교육 대상인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기관이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위한 소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집중했다. 이전부터 대학이 있었던 국가(소련, 동독)의 경우, 노동자학부 덕택에 기존의 ‘시민적 엘리트’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주의 엘리트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독자적인 국가적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출신 대학, 성적 등 사회적 출신과 배경이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이후 이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와 기술을 책임졌다.

흥미로운 점은, 소련이 겪은 경험들이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련의 랍팍 같은 경우 저녁에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방법을 통해 학업을 무사히 마친 학생이 거의 없다는 것을 소련의 경험에서 알 수 있었음에도 쿠바는 저녁에도 수업이 있는 노동자학부를 개설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및 소수 계층을 위한 교육기관(나셈-랍팍)도 따로 신설하지 않았다. 소련의 경우 랍팍 설립 초기부터 각 나라별 언어로 수업하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기관을 만들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수 민족이 많은 베트남에서도 그리고 다민족국가 모잠비크에서도 이러한 방안

은 전혀 논의된 바 없었다. 결국 베트남과 모잠비크에서의 소수 민족 출신들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소련의 랍팍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었다. 랍팍 확산 물결의 첫 번째 시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지역적으로만 발생했다. 반면 중국, 동독, 쿠바는 랍팍의 기본적인 구상을 토대로 자국의 문화와 융합하려고 했다. 여러 논문에서 찾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의 소련화(공산화) 개념’은 충분하지 않은 사례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랍팍의 확산에서 드러나듯이 그런 영향은 단지 조건적으로 주어졌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 교육 전통 내지 현실에 부합하는 경제적·정치적 요구에 맞추어 자체적인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투고일: 2016년 11월 24일 | 심사일: 2017년 6월 3일 |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3일

## 참고문헌

- Balzer, D. Harley. 1987. “Workers’ Faculties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Cadres in the First Decade of Soviet Power.” *Sociology of the Sciences: The Social Direction of the Public Sciences* 11, 193-211.
- Connelly, John. 2000. *Captive University: The Sovietization of East German, Czech, and Polish Higher Education, 1945-1956*. Chapel Hill,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itzpatrick, Sheila. 1979. *Education and Social Mobility in the Soviet Union, 1921-1934*.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iser, Tim, Tobias Kriele, Ingrid Miethe, and Alexandra Piepiorka. 2015. “Educational Transfers in Postcolonial Contexts: Preliminary Results from Comparative Research on Workers’ Faculties in Vietnam, Cuba, and Mozambique.” *European Education* 47(3), 242-259.
- Katunceva, Nina Mitrofanovna. 1966. *Rol' rabočich fakul'tetov v formirovanii kadrov narodnoj intelligencii v SSSR. (Die Rolle der Arbeiterfakultäten bei der Her-*

*ausbildung der Kader Volksintelligenz in der UdSSR*). Moskau.

Kowalczuk, Ilko-Sascha. 2003. *Geist im Dienste der Macht: Hochschulpolitik in der SBZ/DDR 1945 bis 1961*. Berlin: Ch. Links Verlag.

Miethe, Ingrid. 2007. *Bildung und soziale Ungleichheit in der DDR: Möglichkeiten und Grenzen einer gegenprivilegierenden Bildungspolitik*. Leverkusen: Buchdrich-Verlag.

Nikitin, A.P. 1992. "Die Sowjetische Militäradministration und die Sowjetisierung des Bildungssystems in Ostdeutschland 1945-1949." *Bildung und Erziehung* 45(4), 405-416.

Tandler, Fredrika Morehouse. 1955. *The Workers' Faculty (Rabfak) System in the USSR*. Ann Arbor, London: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Dissertation, Maschinenschriftlich, Columbia University.

---

**Abstract**

## The Workers' Faculty in Soviet Model Universities

Ingrid Miethe Giessen University

---

This article presents the Workers' Faculty as an example contributing to the proletarianization and hence the Sovietization of universities. The institution of the Workers' Faculty, originally founded in the Soviet Union in 1919, was transferred in the decades that followed to other socialist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a "socialist development path" located on almost all continents. Four case studies from the GDR, Cuba, Vietnam, and Mozambique allow us to show that elements of a Soviet university were adopted in all four countries. At the same time, however, quite autonomous variations on the original concept developed under local conditions and on the basis of diverging political premises. The worldwide dissemination of the idea of the Workers' Faculty is also found to be independent of any direct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Thus it is argued that the term Sovietization, which assumes a more or less strong influence by the Soviet Union is insufficient to characterize the complexities of this process.

**Keywords |** Workers' Faculty, Sovietization, globalization, education

